



## 동방경제포럼 소식

- **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제4차 동방경제포럼 개최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.** 이번 포럼에는 6천명 이상의 정부 대표단과 60개국에서 온 천3백명의 미디어언론인들이 참가했다. 이번 포럼에서는 3조1천억 루블에 달하는 220개의 합의서가 체결되었다. (인테르팍스)
- **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것은 중국의 극동에 대한 관심을 증명해준다.** 위와 같이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이 밝혔다. 전체 행사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은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중국에게 있어 극동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했다. (러시아 가제타)
- **2018-동방경제포럼에서 최대 투자액을 기록한 사업은 추코트카 바임스키 광물 가공 콤비나트 설립 사업이다.** 이외에 규모면에서 볼 때 알리바바, Mail.Ru그룹, 메가폰과 러시아 직접투자기금의 합작 회사 설립 건, 아에로플롯 항공사의 수호이 SuperJet 100 기종 100대 구매 건, 캄차트카 LNG 환적 터미널 건설 사업을 들 수 있다. (베스티 경제)
- **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야쿠티아 정부는 32건의 합의서를 체결했다.** 최대 잠재 투자 추정액은 1700억 루블에 달한다. 콘드라신 야쿠티아 사하공화국 투자개발청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1조3660억 루블에 달하는 41개 투자 사업을 소개했다고 전했다. (타스 통신)



- 러시아, 중국, 한국 출신 14명의 정치인들과 재계 대표들이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된 청년 행사에서 강연했다. 주요 강연 주제는 2030년을 향한 미래 비전, 첨단기술의 발전 등 이었다. 이외에도 국제관계, 리더십, 경영, 생산과 운영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. (이즈베스티야)
-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전러 인노소티움 소셜 프로젝트 콘테스트가 시작되었다. 참여 신청서 접수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. 보건, 환경, 교육, 건강한 노년, 융합, 여성의 리더십, 이론의 발전, 문화 등 부문에서 소셜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다. (News.Rambler.ru)
- 러시아와 프랑스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. 코바코프 대통령 자문과 베르만 주러 프랑스 전권대사는 프랑스 대표단의 동방경제포럼 참가에 대해 협의했다. 이외에도 러시아와 프랑스 간 주요 국제 행사를 통한 협력을 논의했다. (Lenta.ru)
-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북미대학 학생대표단들이 참가했다. 러 과학원 세르게예프 이사장이 북미에서 온 학생들을 환대했으며, 러시아와 극동 발전을 위한 과학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. 학생들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교육제도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. (FederalPress 통신)
- 러시아 비오퀸드 회사가 중국에 제약 공장을 세울 계획이며, 관련 합의서가 금번 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되었다. 서명식 행사에는 만투로프 러 산업통상부 장관이 임석했다. (코메르산트 신문)
- 로스테흐 국영회사는 Vostok 블록체인 프로젝트 업체와 러시아 '디지털 경제' 프로그램 사업 추진용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. 두 회사는 국가기관, 시민, 지방기관 간의 데이터 교환, 취합, 저장을 위해 Vostok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. (RBK)
- 러시아 직접투자기금과 시스템 그룹은 제4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바이오기술 업체인 Macrogen 한국 회사와의 러시아 내 협력에 대해 합의했다. 양사는 러시아 내 Macrogen 바이오 기술의 상용화와 연구를 위한 여건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. (베스티 경제)
- 미니하노프 타타르스탄 공화국 대통령과 체 준 저장성 중국 공산당 위원회 서기는 경제, 과학, 사회,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. 이번 포럼에서 미니하노프 타타르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서천성과 산둥성 지도부와의 회담을 가졌다. (타스 통신)



- 극동자연보호구역과 국립공원을 안내하는 최초의 가이드북이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소개되었다. 가이드북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출판되었다. 크로노츠키 국립자연보호구역과 비영리기구인 '러시아 자연보호지대' 엑스포센터가 책 출판을 협찬했다. (타스통신)

## 극동 소식

- 2018년 극동은 최고의 어획 풍년을 맞았다. 올해 61만2천 톤의 연어가 이미 잡혔는데, 그 동안 최고 어획 기록은 2009년의 52만 톤이었다. 올해는 유망 어종인 고등어와 정어리 어획량도 증가하고 있다. (리아 노보스티)
- 레기온 회사가 아무르 강을 가로질러 블라고베센스크와 중국의 흑하시를 연결하는 국경지역 케이블카 건설 사업의 신규 투자업체로 선정되었다. 이에 대해 옐로프 아무르주 지사 권한대행이 밝혔다. (타스 통신)
- 제4차 동방경제포럼 중에 루스키 섬 특별금융지역 최초의 입주업체 등록이 진행되었다. 최초 등록업체는 Finvision Holdings으로 이 회사는 6개월 동안 루스키 섬 개발에 5천만 루블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. (타스 통신)

**동방경제포럼 조직사 - 'RosCongress'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.**

'RosCongress'재단은 컨벤션,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.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, 정보,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